

“정남진 장흥 물축제, 밤이 더 뜨겁다”

야간 이벤트 워터락 풀파티, 젊은이·외국인 사이 최고 인기 공연 횟수 2회→3회로 확대·유명 DJ로 라인업 대폭 보강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밤에 즐기는 '워터락 풀파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물축제 야간 이벤트로 첫선을 보인 워터락 풀파티는 첫 행사부터 단숨에 젊은이와 외국인들 사이에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떠올랐다.

워터락 풀파티는 무대 위의 음악 DJ가 틀어주는 전자 댄스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댄스와 물놀이를 즐기는 야간 이벤트이다.

공연 위주로 운영되는 메인 무대의 야간운영을 축소하고,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과물이다.

물축제답게 파티장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도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



며 분위기를 띄우는 데 한몫 한다. 올해는 지난해 인기리에 힘입어 기

존 급, 토요일 2회 진행을 일요일까지 3회로 확대했으며, 유명 DJ로 라

인업을 대폭 보강했다. 개막일인 28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 29일과 30일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뜨거운 풀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위한 특별한 입장료는 받지 않으며, 술과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질서유지와 문화행사로서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있다.

올해는 디제잉을 위한 무대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설치해 물축제의 새로운 아이콘에 도전한다.

김성 군수는 "워터락 풀파티를 중심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물축제가 체류형 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읍 탐진강변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23°C 정남진 장흥으로 발길을 돌려라 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성홍=김종민 기자



진도군 사천리물놀이장 개장

수심 맑고 도심과 가까워 '알뜰 피서지'로 각광

진도군 참찰산 대자연속에 위치한 사천리물놀이장이 21일 개장했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의신면 사천리 운림삼별초공원에 위치한 사천리물놀이장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사천리물놀이장은 참찰산 청정 계곡물을 사용해 수질이 맑은데다 진도를 도심에서도 비교적 가까워 여름철이면 주민과 관광객들의 알뜰피서지로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면적 6,700㎡에 3단 형태로 물놀이장 880㎡ 등 다양한 형태의 풀장과 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무료로 공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 물놀이장은 참찰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청정 계곡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

버릴 만큼 차고 시원한 게 장점이며, 수심이 낮고 안전해 아이들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인근에는 국가지정 명승지 제80호인 운림산봉과 삼별초테마공원과 공원내 오토캠핑장, 천연고찰 쌍계사 등 관광명소가 즐비하다.

군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여가 활용과 군민들의 휴식공간 등을 위해 운영되는 사천리물놀이장이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군민과 관광객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사천리물놀이장은 잘 갖춰진 시설에 더해 참찰산 등 주변 볼거리 또한 풍성하다"며 "여름철 알뜰 휴가를 계획한 주민과 관광객들에겐 최고의 피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세종시에서 '복날엔 전복' 전복데이 개최

완도에서 직송한 특산물 소비자에게 인기



완도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복날엔 전복 전복데이' 직판행사를 열었다.

개장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개장식 후 전복 불회 나눔 퍼포먼스와 전복 가공품 시식, 나눔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복 요리 레시피 소개와 함께 전복, 전복 가공품, 해조류 등 완도특산품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세종시에서 온 주부 김모(45세,

여)씨는 "완도에서 직송한 싱싱한 전복을 저렴하게 구매해 좋다"며 "매년 세종시에서 직판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삼복을 즈음해 무더위를 이기고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기 위해 '복날엔 전복, 전복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더위에 지친 분들이 완도 전복을 먹고 원기를 회복해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도봉산역과 청량리역 광장에서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완도 특산물과 관광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시 음식점소 시민평가단 활약...서비스 불만 '감소'

163명 월 2회 위생상태·친절도 방문평가

여수시가 관광도시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음식점소 시민평가단의 활약이 눈에 띈다.

시는 지난 2015년 말 음식문화모니터요원,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163명을 음식점소 시민평가단으로 위촉한 이후 매월 2회 음식점소를 직

접 찾아 위생 상태와 친절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시민평가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내 650곳의 음식점소를 방문 평가했다. 평가 결과 55%인 358곳이 평가 기준을 통과했고, 나머지 292곳은 부적합 업소로 평가됐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위생모(복) 미착용 242곳, 청결미흡 28곳, 응대미흡 22곳 등이 있었다.

시는 적합업소 중 113곳에는 주철현 시장의 '민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에 감사드린다'는 인사가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어 부적합 업소로 평가된 음식점소에는 개선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평가단 활동 결과 청천업소

와 부적합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음식점소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직소민원과 식품위생과에 접수되는 음식점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169건)보다 44% 감소한 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미활동 시민평가단원에 대한 교체와 함께 지원봉사 우수활동가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해 평가단을 2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소방서, 전통시장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19일 소방차 진입공간 구간(무안 전통시장)에서 훈련차량 5대, 소방공무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계도 △ 소방차 진입공간(장애) 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및 캠페인 △ 소방활동 장애요인 사전제거 및 출동로 확보 △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방차 길 터주기 훈



련을 통하여 소방차량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보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인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42%p 감소		18%p 감소	
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종료되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